



**특집** \_ 중국 동포 70만 시대 한국 정착 성공하며 주류 사회 진입

**화제** \_ 한·미 노병들, 영화 '국제시장' 함께 보며 눈물바다 6·25는 '잊힌 전쟁' 아닌 '잊힌 승리'



#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조선 후기에 6판서를 배출한 용인이씨 판관공파 집안의 호패. 각 호패에는 이름, 출생 연도, 문과 급제 연도, 호패 제작 시기 등을 새겼다.

조선 후기 성인 남성에게 친숙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호패(號牌)였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누구나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호패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비롯해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담고 있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호패법은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인조 때까지의 호패법은 각종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들의 반발 때문에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곤 했다. 인조 4년(1626)에는 '호패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효수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인조 5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인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곧바로 폐지됐다.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 때에 이르러서였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란을 겪은 뒤 정부는 인구 파악과 군적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중에 호패법의 시행을 추진했다.

호패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재료를 달리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로 상어나 검은색 뿔을 이용해 만들었다. 지위가 낮은 사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목패를 사용했다.

람은 나무로 만든 목패를 사용했다.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관원에게는 관청에서 호패를 만들어 지급했다. 그 외 대부분은 개인이 호패에 기재할 성명, 본관, 출생 신분, 직업, 거주지 등을 관청에 적어 내고 낙인을 받은 뒤에 지급받았다. **참**



### 표지 이야기

7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조선족 사회의 뚜렷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의식을 갖고 거리 청소, 무료 급식 등 각종 봉사 활동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02** 한국의 열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 04** 특집            중국 동포 70만 시대  
한국 정착 성공하며 주류 사회 진입
- 06** 동포 소식      뉴욕에서 영면한 애국지사 황기환 유해 국내 송환 추진 외
- 09** 동포 캘린더    곧 헐릴 뉴욕한인교회 건물서 3·1절 기념 예배 외
- 10** 기획            원목 개발로 시작해  
현지인 100만 명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재난 발생 때마다 현지인과 상생 협력
- 12** 화제            한·미 노병들, 영화 '국제시장' 함께 보며 눈물바다  
6·25는 '잊힌 전쟁' 아닌 '잊힌 승리'
- 14** 글로벌 코리아    미 해군의 실용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 데니스 흥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주제곡 만드는 재외동포 양방언  
한인 최초 호주 인권위원회 중재관 이현주 변호사
- 16** 지구촌 통신원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수정' 압력에 경악" 집단 성명  
'일본 과거사 왜곡' 국제 쟁점 부상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 가족의 친양자 입양과 파양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 18** 한민족 공감      상암동 CJ E&M센터서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출범  
"문화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연금술"
- 19** 현장의 목소리    변명도 기술입니다
- 20** OKF 뉴스        조규형 이사장 애틀랜타 한인회관 개관식 참석 외
- 22** 동포문학        제2의 고향 일본  
노은정 \_ 일본 \_ 2014 재외동포문학상 초등 부문 장려상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강원도의 맛과 향기가 듬뿍  
침국수와 곤드레나물밥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 70만 시대

# 한국 정착 성공하며 주류 사회 진입



국내 중국 동포(조선족) 수가 어느새 70만 명에 이르렀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가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졌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자 중국 동포의 입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과거 조선족들이 한몫 잡기 위해 앞다퉈 한국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한국의 앞선 문물을 익혀 중국에 돌아가 사업을 하거나 아예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사실상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의식도 변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한중 교류 증가와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다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목전에 둔 상황을 맞아 중국 동포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

중국 동포 사회의 뚜렷한 변화 중 가장 큰 것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뜨내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품은 것이다. 서울 대림동은

물론 신림동, 신대방동, 자양동 건국대 주변, 그리고 경기도 수원역 부근, 성남 수진동, 안산 원곡동 등은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중국 동포 타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동포의 우리나라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재외동포에게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동포의 한국 정착을 이끄는 '유인'이다.

국내 거주 중국 국적 동포는 방문취업 비자 제도 도입 등 입국 문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7년 32만 8천 명에서 2014년 12월 말 현재 경기도 안양시 인구와 맞먹는 60만 7천 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행정자치부의 작년 통계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는 7만 6천921명이다. 이를 합치면 70만 명에 육박한다.

## 창업하는 중국 동포 늘어 강남까지 진출

정부는 1월 27일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제조업·농축어업·임업 분야로도 확대했다. 특히 제조업 진출 허가는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의 선진 기술을 익혀 중국에서 창업할 꿈을 꿀 수 있게 됐기 때

1. 영등포평화봉사단원과 재한 조선족 단체 등이 함께 서울시 대림역 주변에서 '클린 활동'의 일환으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2.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주최 '한마음 체육대회'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운동장에서 지난해 가을 열렸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재한동포연합총회, 한마음축구단, 동포산악연맹 등 14개 조선족 단체 500여 명이 참석했다.
3.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고향인 동북3성을 방문하지 못하는 조선족을 위해 구로동 정현탑웨딩홀에서 열린 '춘절 맞이 동포 노래자랑'에서 조선족 가수가 노래하고 있다.
4.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조선족' 중국 동포가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대림역 인근 '조선족 타운'의 상가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과 한국어 간판이 뒤섞여 있다.



문이다.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유학 와 한국어와 중국어가 능통한 30대와 40대의 창업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직업 분야도 관광 가이드, 면세점 직원, 통역 요원 등 비교적 고임금을 받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늘고 한중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동포들의 활동 영역은 건설업, 제조업, 농어업 외에도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서울 시내 모 백화점은 씹씹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자 면세점은 물론 의류 코너, 식당 등에까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족 동포를 대거 고용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중국인의 의료 관광을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도 고학력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새 직업으로 부상했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은 “고국이 있어 돈도 벌고 자녀 교육에도 노력해 많은 조선족 젊은이가 각계로 잘 진출하고 있다”며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20여 년이 지나면서 조선족 사회가 과거의 어렵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중국 동포의 거주지도 변하고 있다. 초기 입국

중국 동포들은 서울 지역에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가리봉동 또는 대림동을 선호했으나, 최근 몇 년 새 돈을 번 중국 동포들은 사당·방배·성북동, 서대문·동대문, 심지어 강남으로도 이주한다.

관련 단체들의 현황을 봐도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는 뚜렷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초기 단체들은 교회 주도의 재한조선족연합회·귀한동포연합총회·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등으로 활동이 주로 인권·복지 문제에 한정됐다. 2007년 방문취업제 이후 중국 동포한마음협회·재한동포연합총회·꽃망울회·kcn클로버봉사단·중국동포축구연합회·한마음골프클럽·문인협회 등으로 다변화했다. 최근에는 경제(한중경영협회)·정치(재한동포유권자연맹)·예술(한중예술협회)·각종 다문화 중국 동포 단체 등의 단체들이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구로동에서 재외동포 학교를 운영 중인 문민 어울림학교 교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동포가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의 주류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남한은 물론 북한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이들이 남북 화해 사업에 앞장서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장**

## 뉴욕에서 영면한 애국지사 황기환 유해 국내 송환 추진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돼 조선 독립을 주장했던 황기환 애국지사가 92년째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쓸쓸히 잠들어 있다. 황지사가 묻혀 있는 곳은 뉴욕 퀸스 매스페스에 있는 '마운트올리벳 공동묘지'. 약 50cm 높이의 자그마한 비석에는 '대한인', '황기환지묘' 등 이름과 사망일이 새겨져 있다.

1995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애국장'에 추서된 황지사는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설립한 주파리위원회의 서기장을 맡아 김구식과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주파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 대리



뉴욕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는 황기환 애국지사

를 차례로 맡아 유럽 국가들에 조선 독립을 호소했으며 1921년에는 미국으로 돌아와 외

교 활동을 전개했다.

수십 년 동안 잊혀진 황지사의 무덤이 재발견된 것은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장철우(76) 문화재 찾기 한민족네트워크 뉴욕지회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뉴욕한인교회 70년사'라는 책에서 교회 초창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마운트올리벳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문구를 본 뒤 교회 청년들과 함께 무명의 한국인 무덤을 찾아 헤맨 끝에 2008년 비를 발견했다.

국가보훈처는 2년 전 묘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으며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황지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현충원에 안장할 방침이다.

## '세계 최초 유학생 참전' 재일학도병에 호국영웅메달 수여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대한해협을 건너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회용군 '노병'들에게 호국영웅기장(메달)이 수여됐다. 재일학도의회용군 참전 용사인 이봉남·박봉민·유재만·조인석 등 4명은 2월 7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이 기장을 받았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학도의회용군 참전용사 10명 중 나머지 6명은 병환 등으로 인해 이날 자리하지 못했다.

호국영웅기장은 6·25전쟁 정전 60주년인 2013년 참전 유공자에게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외의 참전 용사에게 수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일학도의회용군 참전 용사인 이봉남·박봉민·유재만·조인석 등이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뒤 경례하고 있다.

정부를 대표해 기장을 수여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일학도의회용군들은 일본에서의 안정적 생활과 보장된 미래가 있음에도 '지킬 조국은 대한민국'이라

는 확신을 품고 주저 없이 참전했다"며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능케 한 용사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하던 중 자발적으로 참전한 642명의 재일학도의회용군은 인천상륙작전, 이원·월산작전, 백마고지 및 김화 지구 전투, 장진호 전투 등 6·25전쟁 중 여러 격전에 참전했으며, 총 13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재일학도의회용군의 참전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재외국민 참전으로 알려져 있다.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세계 각지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참전한 것보다 17년 앞섰다.

## 유럽총연, 불가리아서 유럽 한인 차세대 웅변대회 개최

유럽 한인 차세대들의 우리말 웅변 솜씨를 겨루는 대회에서 스페인의 이 시은 양이 대상을 차지했다. 유럽한인 총연합회(유럽총연·회장 박종범)가 불가리아한인회(회장 박성태)와 함께 2월 7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힐튼 소피아 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에서 중고등부의 이 양은 '하비와 백호'라는 제목의 웅변으로 대상인 외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양은 연탄에 얽힌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감동적으로 풀어내며 연탄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동포들의 눈물샘을 자극해 박수



불가리아에서 열린 제4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갈채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과 함께 1천500유로(약 185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웅변대회에는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

가정부 등 3개 부문에 16개국 43명의 연사가 참가했고 학부모와 유럽총연 임원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최우수상(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에는 초등부 김관우(프랑스) 군, 다문화 가정부 우수상 전혜지(프랑스) 양, 중고등부 우수상 권시은(이탈리아) 양이 각각 뽑혀 부상과 상금 1천 유로(약 123만 원)를 받았다.

유럽총연 관계자는 “대회를 앞두고 폭설로 비행기 결항도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늘어 차세대 육성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중동 한상연합회 출범

앞으로 한민족 경제인 모임인 세계 한상대회에 아프리카·중동 한인들도 참여한다.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는 2월 23일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빅토리아폭포의 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아중동 한상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아중동 한상연합회장에는 신동철(58) 아랍에미리트(UAE) 한인회장이 선출됐다.

총연합회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큰 흐름은 민족 네트워크 형성이며 질적·양적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임도재)가 2월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아중동 한상연합회를 출범시켰다.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는 아중동 한상은 다른 어느 때보다 민족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상연합회 설립 배경을 밝혔다.

임도재 총연합회장은 정기총회 개최사에

서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면서 “한인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한민족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발족시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외 기업인 3천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아중동 17개국 18개 지역 한인회장, 권용규 짐바브웨 대사, 루도 파라니시 짐바브웨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쿠바 아바나서 한인 후손과 한류 팬 어울린 ‘한국 문학의 밤’

쿠바 수도 아바나의 나시오날 호텔에서 2월 13일 한인 후손, 쿠바인, 한국의 유명 작가, 우리 정부 관계자 등이 어울려 한마당 춤판을 벌이는 흥겨운 밤이 연출됐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학번역원과 한·쿠바 교류협회 등이 후원한 한국 문학의 밤 행사에는 문정희 시인, 오정희 소설가, 홍성화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안토니오 김 함 쿠바 한인후손회 회장, 한류 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가 2월 12~22일 아바나의 카바냐성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처음 참가해 개최한 이 행사는 1부 문학 행사, 2부 축하공연



2월 13일 쿠바에서 열린 ‘한국 문학의 밤’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 유명 작가, 쿠바 한인 후손, 한류 팬 등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

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 중 호세 마르티 문화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국 가요를 열창하고 현지 악단이 쿠바 음

악을 연주하자 행사장은 흥겨운 춤 무대로 변했다. 100여 명에 이르는 한류 팬은 흥 대사, 두 작가, 김 국장 등의 손을 잡고 무대로 데려가 함께 신나는 춤판을 벌였다.

1부 문학 행사에서 한글학교 수강생들이 문정희 시인의 작품 ‘꽃의 선언’을 읊고 오정희 소설가의 작품인 ‘저녁의 게임’ 중 일부를 우리말로 낭독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우리 대표단은 2월 14일 카바냐성에서 한국의 대표 문학 도서를 전시하고 쿠바 도서위원회와 한인후손문화회관에 도서를 기증했다.

## “구글서 사라진 독도를 찾자”... 재미동포 청원 운동

“구글은 구글 지도에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Dokdo)’의 이름을 ‘리양쿠르 록스’로 변경했습니다. 복원을 요청합니다.”

구글 지도에서 사라진 ‘독도’의 이름을 되찾으려고 재미동포들이 나섰다. 구글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전까지 지도에서 독도를 영어로 ‘Dokdo, Korea’라고 표기해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후 독도 표기는 사라지고 ‘리양쿠르 록스’로 바뀌었다. 2011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일본 정부의 압력과 로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리콘밸리한인회(회장 신민호), 김진덕·정경식재단(대표 김한일), 세계한인여성네트워크(KOWIN) 샌프란시스코지부(회장 이경이)는 최근 모임을 열고 지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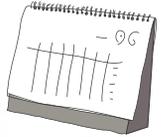
구글 지도에서 사라진 ‘독도’의 이름을 되찾으려고 재미동포들이 나섰다. 사진은 청원 관련 홈페이지

년 10월 25일 이후 구글 지도에서 사라진 독도 이름을 되찾자고 의기투합했다. 3개

단체가 주축이 된 이른바 ‘제2차 독도수호 연대모임’이다. 지난해 11월 동해 병기 및 독도 수호 연대를 창립한 것이 첫 모임이다.

이 모임의 뜻에 공감해 샌프란시스코 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해 몬테레이 한인회, 해병대전우회, 한미노인봉사회, 북가주 6·25 참전유공자회, 흥사단 실리콘밸리지부,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 등 북가주 지역 한인 단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인들의 서명을 받아 5월 초에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 “지도에서 독도를 표기하라”고 청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408-244-2400) 또는 이메일(svkccenter@gmail.com)로 하면 된다. [정]



## 곧 헐릴 뉴욕한인교회 건물서 3·1절 기념 예배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대 인근에 있는 뉴욕한인 교회는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를 올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총칼과 맞선 3·1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조국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예배가 특별히 3·1 독립만세 운동 96주년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시작한 것은 이 교회가 올 상반기 중에 헐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1927년 유학생을 포함한 교인들이 3만5천 달러에 구입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 이 교회는 안건 상의 문제로 헐고 다시 짓게 된다.



## 재선 성공한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 을 활동 방침 확정

오공태(68)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올해 첫 중앙위원회를 열고 활동 방침을 확정했다. 중앙위는 재일동포 사회의 대통합 추진, 재일동포 미래 창조 포럼 개최, 민족 금융기관 및 상공 활동 조성 강화, 국교 50주년 한일 교류 방한단 파견 등 집행부 원안을 승인했다. 2월 18일 열린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 단장은 임기 3년 동안 협한 시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재일한인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원회, 아디스아바바 지부 업무 개시

6·25전쟁에 참가했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노병을 지원하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용사 후원회가 2월 20일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현지 사무실을 열고 3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아디스아바바 사무실은 아디스아바바 대학생 4명을 고용해 에티오피아에서 필요한 연구 업무, 커피 등 농산물 안내, 현지 봉사 등을 맡는다. 후원회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현지 한국전 참전 노병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 LA서 유학생 · 한인 2세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한미경제개발연구소(회장 존 서), 잡코리아 USA(대표 브랜든 이), 코트라 LA무역관(관장 박동형)은 3월 27일 미국 LA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제4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현지 유학생과 한인 1.5세와 2세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는 각 기업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를 받고, 현장에서 구직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람회 참가는 무료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문의 잡코리아 USA(☎213-384-1004, www.jobkoreausa.com).



## MLB 추신수 댈러스 팬클럽 '추인달' 단체 응원전 계획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는 한국인 타자 추신수(33)를 응원하는 공식 한인 팬클럽인 '추인달(추신수 in 댈러스)'이 단체 응원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창단한 '추인달'은 텍사스의 홈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단체 응원으로 추신수를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텍사스 레인저스의 '한국인의 날'로 예정된 6월 15일에는 대대적인 응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개막전은 4월 6일 열리며 홈 개막 경기는 4월 10일이다.



## 나이지리아서 세배 · 제기차기 등 설 풍습 소개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원장 권용익)은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 풍습을 소개하기 위해 2월 19일 한국문화원에서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원은 한글 교실 수강생, 태권도 교실 수강생, 한류 동호회 멤버, 케이팝(K-Pop) 팀, 학부모 등 약 150명을 초청, 한국의 다양한 설 풍습을 선보이고 함께 체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 체험 행사는 1부 공연, 2부 제기차기, 윷놀이 등 설 전통놀이 체험에 이어서 3부 설날 음식 맛보기로 진행됐다.



# 원목 개발로 시작해 현지인 100만 명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재난 발생 때마다 현지인과 상생 협력



**동**남아 지역의 한인은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기보다는 사업상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잔류한 사람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1960년대에 지사나 상사의 직원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현지에서 독립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처음부터 목재와 건설이 주축을 이뤘으며 당시로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특색이다. 대부분의 한인은 투자 사업가, 기술자, 관리직, 숙련 노동자로 인도네시아에 발을 디뎠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수라바야 등의 섬에 거주하면서 삼림 개발에 노력했고 소수의 인원만이 자카르타에 살았다.

우리 해외 투자의 공식적인 효시는 한국남방개발(대표 최계월)의 인도네시아 원목 개발 사업이다. 이 회사는 1963년 정부에 사업 허가 신청을 냈으나 당시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도, 법 제도도 없어 5년이나 허송세월한 끝에 68년에야 허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선 당시 원목을 4m 길이로 잘라서 사람이 직접 메고 나왔는데 1968년에 남방개발이 장비를 도입해 도로를 닦고 선적을 시작한 결과 15m 길이로 잘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됐다.

원목 사업은 매우 경기가 좋았다. 그런데 1970년대 초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공업 발전을 위해 공업화 조항을 만들었다. 코린도 등 한국 기업도 합판 가공 등



공업화를 서둘렀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기업들이 대규모 합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으나 초창기에는 코린도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최대 합판 수출 회사였다. 목재, 종이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코린도 그룹은 1969년에 설립해 연매출 1조 원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20위권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인 기업가들은 착실히 기반을 닦아서 성장을 계속했다. 자카르타에는 천연 자원의 개발과 건설 공사에 진출한 한인 기업의 경영자, 관리 직원, 지사와 상사의 파견 직원, 외교관, 무역업자 등이 거주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동질적이며 또한 비교적 생활면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카르타의 한인 사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1972년에 인도네시아 한인의 수는 700명에 이르렀다.

1973~74년에 조성된 오일 경기로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나 이 기간 중 한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80년대 초반에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진출했다. 1982년 3월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970년대의 두 배에 달하는 1천500명으로 증가했으며 6달 뒤인 7월에는 2천 명, 1983년 1월에는 3천 명으로 불어났다.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한인 수 증가에 한몫했다.

80년대 후반에는 국내의 임금 상승을 견디지 못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 기반의 이전을 시도했다. 1986년까지는 인도네시아에 단 한 개도 없던 한인 소유의 봉제 업체가 1993년 말에는 재인니한국봉제협회의회에 가입한 업체만 73개로 증가했으며 완구, 신발 업체 등도 대거 진출했다.

외교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재인도네시아 한인은 1995년에 7천532명이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자카르타 5천500여 명, 자바 1천200명, 수라바야 200명, 칼리만탄 300명, 기타 지역 300명 등이다. 대부분이 한국의 투자 업체 또는 외국인 업체에 취업하고 있고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자는 약 100명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3만 700명, 2013년에는 4만 284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교, 교회, 불교 사원, 한국 식당, 여행사 등 다양한 업종이 생겼으며 심지어 대입 준비 학원도 등장했다. 한인 사회는 2015년 현재 2천200여 기업이 1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자카르타에 한인 학교가 등장한 것은 1976년 1월로 처음에는 유치부와 초등 학교 3학년 과정까지를 개설했다. 당시 학생 수는 26명에 불과했다. 학교 건물은 1978년에 동포들의 모금으로 완공했다. 1993년에 코린도, 현대 등 기업들도 모금에 동참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의 명칭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로 변경했다.

한인회의 역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 현재의 한인회가 조직된 것은 1972년이다. 한인회는 최계월, 신교환, 승은호 회장 등으로 이어지며 친목 모임의 성격이 강했으나 1990년대 인도네시아 투자 열기를 타고 기업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급격한 규모의 팽창과 변화를 겪었다. 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신기엽)는 일찍부터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 사회를 표방하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현지인과 상생 협력을 다지고 있다. **창**



5



6



7

1. 국민권익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2.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11일 자카르타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3.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INDO)는 2012년 7월 4일 양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4. 1977년 인선 제3부두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쌀을 선적하고 있다.
5. 인도네시아 땅그랑 지역 한인회가 2010년 7월 29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현지인 부부 57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
6.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로 구성된 자카르타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이 2009년 11월 19일 수마트라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열었다.
7. 인도네시아에서 재계 순위 20위권 기업으로 성장한 코린도(KORINDO)그룹의 승은호 회장

한·미 노병들, 영화 '국제시장' 함께 보며 눈물바다

# 6·25는 '잊힌 전쟁' 아닌 '잊힌 승리'



1

**2월** 11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의 리걸극장 2층 상영관. 은막을 응시하던 '영원한 노병(老兵)' 스티븐 움스테드(84) 예비역 장군의 두 눈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혔다. 지옥 같던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중장 출신으로서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참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고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화 '국제시장' (영문명 Ode to My Father)의 워싱턴 특별상영회 현장의 풍경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채 노구를 이끌고 나온 50여 명의 한·미 참전 용사는 너나 할 것 없이 흥남 철수 작전과 피란민들의 생이별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연신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움스테드 장군의 시계는 65년의 시공을 거슬러 흥남 부두 철수 작전이 진행되던 1950년 12월의 한겨울로 되돌아갔다. 당시 19세의 이병이었던 움스테드 장군에게 이미 스러진 듯했던 기억이 다시 생생한 현실로 되살아났다. 그는 사병으로 입대해 중장까지 진급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영화 초반 긴박했던 흥남 철수 작전을 지켜본 움스테드 장군은 "당시 흥남 부두에서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모습과 군함, 병력, 장비의 움직임을 너무도 정확히 그려내 정말 놀랐다"며



1. 영화 '국제시장' 특별상영회에서 한·미 참전 용사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2. 1950년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스티븐 움스테드(85) 예비역 장군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찾기 행사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참전용사와 기자들을 아울러 객석 전체가 한마디로 ‘눈물바다’였다.

움스테드 장군은 “당시 남쪽으로 철수하던 군함 내부에는 사람으로 가득 차 제대로 누울 공간조차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다행히도 군함에서 일하는 민간인 정비공들이 지하 병커 같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줘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움스테드 장군은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객석 앞으로 나와 “지금 미국 내에서는 한국전쟁이 무관심 속에 치츄 잊혀 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 영화를 통해 그 전쟁이 승리한 전쟁이었음을 알게 됐다. 잊힌 승리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흥남 철수 과정에서 배에 실어야 할 무기를 버리고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극적으로 탈출시킨 당시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1892~1979) 소장의 외손자인 토머스 퍼거슨(72) 예비역 대령이 참석했다. 퍼거슨 대령은 “아버지가 2차 대전에서 숨겨 외할아버지는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며 “외할아버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까지 참여하며 엄청난 전과를 세웠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작전은 바로 흥남 철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외할아버지는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승인도 얻지 않고 측석에서 배 안의 무기를 버리고 피란민들을 태우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나중에 아무런 문책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란민을 태운 데 대해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 아몬드 장군에게 피란민들을 승선시킬 것을 수차례 설득한 당시 군의관 고(故) 현봉학 박사의 거제도 묘소를 참배한 사실이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동포사랑 한인교회연대(KCNK)와 북한 인권 단체인 LiNK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싱턴협의회(회장 황원균)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워싱턴 지회와 워싱턴 재향군인회, 미국 측 한국전 재향군인협회 소속 참전용사들과 주미 대사관 소속 무관들이 참석했다.

나르스 콜리바(85) 미국 측 한국전 재향군인협회장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미국인이 이 영화를 보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던 그 엄동설한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그의 부대는 1950년 10월 원산에 상륙했던 미 해병 1사단이었다. 미 10군단과 함께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던 그의 부대는 중공군의 개입 이후 장진호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르며 후퇴 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은 바로 흥남 철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의 기억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한 그는 당시 흥남 부두에서 피란민들이 겪었던 ‘아비규환’ 같은 상황을 잊지 못했다. 움스테드 장군은 “전쟁은 정말 생지옥”이라며 “전투 과정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육군과 해병대에게도 지옥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민간인들의 아픔은 형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인공 덕수가 흥남에서 헤어진 여동생을 1980년대 초 이산가족

# GLOBAL KOREAN

## 미 해군의 실용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 데니스 홍 사용자 친화형 로봇 알피오스 개발



재미 한인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은 로봇공학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

재미 한인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44)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가 현장에서 더 많이, 널리,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실용형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에 나섰다.

홍 교수는 2월 9일 자신이 이끄는 UCLA 로봇연구소인 로멜라(RoMeLa)의 실용형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알피오스

(ARPIOS)가 미 해군 연구국(ONR)의 지원 과제로 선정돼 앞으로 4년간 16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알피오스에는 탄성을 이용해 힘과 위치를 함께 제어하는 첨단 기술인 인공 근육 기술이 적용된다. 이 기술은 보통 로봇 들처럼 로봇 관절의 위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근육처럼 위치와 힘을 함께 제어하는 것으로 로봇이 울퉁불퉁한 바닥처럼 험난한 곳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해군에서 필요한 선체 비파괴검사 임무 수행에 맞춰 알피오스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알피오스 플랫폼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형, 실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고려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과학재단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 등 로봇공학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 그는 2월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공학한림원(NAE) 회의에서 뛰어난 젊은 공학자를 선정해 석학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를 주는 ‘길브레스 강연’ 2015년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주제곡 만드는 재일동포 양방언 한국적 정서 살린 피아노곡 작곡

2016년 세계산악영화제를 준비 중인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추진단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양방언(50) 씨에게 의뢰해 영화제 주제곡을 만들기로 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영화제이다.

양씨는 1월 2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방문해 신불산과 간월재 일대를 둘러봤다. 그는 “깊은 산이면서도 확 트여 있고 하늘도 넓게 펼쳐져 있어 열린 느낌이 든다”면서 “이런 느낌

을 살려 작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주제곡은 내년 영화제 공식 개최에 앞서 올 8월 열리는 사전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후 영화제 개·폐막식과 홍보 영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가 고향인 아버지와 신의주가 고향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양방언 씨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통한다. 그의 음악 세계가 동서양을 오가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고, 클래식



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음악 OST까지, 장르와 시대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작곡가, 연주가, 편곡가, 프로듀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공식 음악 ‘프런티어(Frontier)’를 작곡했으며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과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의 음악을 맡기도 했다. 광고 음악도 여러 곡 만들었다. 그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으며,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판타지’ 등 한국의 정서와 스토리텔링을 탐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방문한 크로스오버 음악가 양방언 씨가 신불산과 간월재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한인 최초 호주 인권위원회 중재관 이현주 변호사

#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

“고등학교 때 빌라우드 밀입국자 수용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수녀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인권 신장에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한인 동포로는 처음으로 호주 연방정부 인권위원회에서 중재관으로 근무하는 이현주(36) 변호사는 조건이 좋은 법무법인을 마다하고 인권위에서 일하게 된 배경과 포부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학교 3학년 때인 1994년 호주로 조기 유학해 정착한 이 변호사는 인권위가 인종차별 사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때 당사자 간 중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권위 내에서 그의 공식 직책은 선임 조사 중재관이다.

그는 10학년(한국의 고1에 해당) 때 학교에서 정한 3주간의 봉사 활동 시간에 빌라우드 밀입국자 수용소에서 활동하면서 박해나 차별을 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수용소에서 개인적 의지에 따라 3년간 더 봉사 활동을 한 그는 뉴사우스웨일스대에서 법과 정치를 복수 전공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뒤 사회에 진출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을 이내 그만두고 영세한 세



한인 동포로는 처음으로 호주 연방정부 인권위원회에서 중재관으로 근무하는 이현주 변호사

입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다가 중재재판소 등지에서 인권위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잦아졌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그의 모습을 눈여겨보던 인권위 관계자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이 변호사는 결국 2008년 인권위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변호사는 호주와 한국 인권위 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꿈도 품고 있다. **창**

#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수정’ 압력에 경악” 집단 성명 ‘일본 과거사 왜곡’ 국제 쟁점 부상

노호동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이 보내온 집단 성명서

◀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6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주요 집회

미국의 저명 역사학자들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미국 코네티컷대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2월 5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에 미국 역사협회(AHA) 소속 역사학자 19명이 연대 서명한 ‘일본의 역사가들과 함께 서서’ 라는 제목의 집단 성명을 보내왔다.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 이슈를 놓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성명은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 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처사인지를 역사학도의 관점에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성명은 “일본 정부 문헌에 정통한 역사가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아시아 생존자들의 증언이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에 준하는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많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징집됐으며 아무런 이동의 자유가 없는 최전선의 위안소로 끌려갔다”면서 “생존자들은 장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고문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더욱 큰 우려를 표명하는 대목은 아베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사 왜곡을 강요하는 점이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만들어가고 있

다”며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거론하며 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이처럼 들고일어난 데에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런 역사 왜곡 시도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역사학자들까지 공식으로 반기를 들면서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내적으로 미국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해당 출판사는 물론 미국 내 언론과 학계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한 형국이다. 특히 일본계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기 위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할 태세다.

더욱 큰 문제는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가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로서도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해진 점이다. 거침없이 과거사 왜곡 드라이브를 걸어온 아베 총리가 ‘벌집’을 잘못 건드린 모양새다. **장**

## 재외동포 가족의 친양자 입양과 파양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된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

친양자 입양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입양 후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한다.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자와 친생자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친양자와 양부모의 자격 요건도 중요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한다.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입양할 수 없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한다. 여기서 '혼인 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이것은 혼인 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열린 '입양 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야 한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배우자의 의탁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경우에는 양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친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 사이에는 이미 친자 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의식불명·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친권 상실의 한 예로는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사해 친권을 박탈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장]**

### Q.

친양자 관계를 취소하거나 파양할 수는 없나?

### A.

협의로 파양을 할 수는 없다. 친생부모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부활한다.

상암동 CJ E&M센터서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출범

# “문화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연금술”

정부의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기조 실현을 위한 주요 실행 계획인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출범식이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창조경제의 대표 산업이며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역설했다.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정책의 핵심은 ‘순환 생태계 구축’에 모아진다. 오는 2017년까지 융·복합 문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구현, 재투자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활성화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한 문화 창조 융합 센터에 이어 올해 말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조성할 문화 창조 벤처 단지, 내년 말 흥릉 산업연구원(KIET) 부지에 조성할 연구 개발(R&D), 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 창조 아카데미, 2017년 말 경기도와 CJ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한 1조 원 규모의 콘텐츠 향유 시설 ‘케이 컬처 밸리’(K-Culture Valley)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018년 말 제주 중문단지에 조성될 융·복합 상설 공연장도 주요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들 인프라를 통해 콘텐츠 기획 및 개발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업체 입주와 지원 기관 집적화 등 사업화 지원,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 콘텐츠 향유 공간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 기획 기반 조성 단계를 지나 올해 말까지 제작 및 사업화 구축, 내년 말까지 육성 기반 구축, 그리고 2017년 말 벨트 구축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순순환에 따른 실제 경제 효과는 ‘케이 컬처 밸리’를 통해 집약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5조 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와 1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공연장·콘텐츠 파크·호텔·상업 부지 건설과 운영을 통해 직접적으로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및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했으며, 이와 별도로 콘텐츠 제작과 공연 등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신규 유동 인구 발생에 따른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10년간 생산 유발액 10조 원, 고용 창출 6만 명 달성이 가능하리란 추산이다. **창**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출범 기념 점등판에 점등 톱나바퀴를 꽂은 뒤 박수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출범식에서 창작 뮤지컬 배우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변명도 기술입니다

최은숙 미국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세상천지에 변명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미국인들의 변명은 특히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변명이라고 보다는 자기 의견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독특하다고나 할까?

12학년 마지막 학기에 딸아이는 미술 과제 준비로 분주했다. 자신의 취미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하는 재미있는 과제였다. 딸아이는 음표 모양으로 자른 판자 위에 오래된 악보 등을 찢어 붙이고 못쓰게 된 피아노 키를 배열해 붙여서 제법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온 딸내미는 자기 작품이 학교 전시장에 전시될 것이라며 좋아했다. 그리고 배꼽을 잡고 웃으며 케이티의 작품에 대해 설명을 했다.

“케이티는 철사를 구부려서 라켓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장식해서 테니스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철사가 부러지고 대가 휘어서 다 망가져 버렸데.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됐더라고. 근데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야. 원래 작품 의도는 그게 아닌 게 뻔한데도 그럴듯하더라고. 진짜 웃긴 건 케이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야. 개네 아빠가 변호사거든.”

듣다 보니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미대에 다닐 때 형편없는 작품을 걸어 놓고 멋진 설명만으로 당당하게 심사위원을 설득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시킨다. 포스터 보드에 자료를 그리고, 만들고, 붙여서 전체 학급 앞에서 발표하는 일을 과목마다 몇 번씩 치른다. 팀을 짜서 비디오를 찍기도 하고 광고용 티셔츠를 염색하거나 현수막을 만들기도 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창의력이 계발되고 발표력과 자신감이 마음껏 길러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취급한다.

아이들은 그 외의 과제를 통해서도 설득력과 논리력이 훈련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논제를 뽑는 훈련을 시키고 그걸 증명하고 설득시키는 문장을 만들게 한다. 오죽하면 주관식 시험 문제의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절대 빈칸으로 남겨 두지 말고 어떤 논리라도 펼쳐서 그것을 증명해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사과나무에는 무엇이 열리는가 하는 질문에 배가 열린다고 쓰고도 논리만 그럴듯하다면 점수를 받는 식이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린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하는 우리 교육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리포트는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엉터



리 논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사 자료를 짜깁기해서 논리적 완성만 해내면 얼마든지 좋은 리포트로 취급을 받는다. 무엇을 증명하는가보다는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이들의 교육 철학이다. 이런 일련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말을 참 잘한다. 말이 많기도 많다. 어떨 때는 순전히 입으로만 먹고사는 사람들 같기도 하다.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훈련된 담력과 입심이니 오죽하겠는가. 가끔 학교 학부모 회의에 가보면 하찮은 안전과 질문을 거침없이 발표하고 또 그에 대해 성의를 다해 토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두고 따지고 협의하는 그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대강 넘어가는 나의 태도와 다르게 웬만하지 않아도 꼼꼼히 짚어나가는 그들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기 맞는 논리를 정립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 사회에서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미국인들은 이런 천재적인 오리발과 변명에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과를 한다. 참으로 낮도 두껍다. 우리 같으면 양반 체면에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미국인들이 양반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창

## 조규형 이사장 애틀랜타 한인회관 개관식 참석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월 13일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월 13일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복원을 축하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새 애틀랜타 한인회관은 2013년 5월 도려빌의 구 한인회관이 불타버린 이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오영록) 주최로 열린 개관식은 흥겨운 풍물놀이와 함께 새 한인회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새 한인회관은 1만 1천200평 부지에 1만 4천 평의 건물로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관식에서 오영록 한인회장은 "1968년 소수의 한인 원로가 모여 세운 한인회가 이제 50년의 세월을 거쳐 10만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로 잿더미가 된 한인회관이 다시 일어난 것은 한인들이 단결한 덕분"이라며 "이제 새 한인회관은 차세대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다민족과 교류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김성진 애틀랜타 총영사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새 한인회관 개관을 축하했다.

조 이사장은 "한국에서 처음 도움을 요청 받았을 때 규모를 듣고는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애틀랜타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포들이 보여준 모금 활동, 단결된 결집력, 그리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력은 다른 동포사회에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다.

주정부와 지역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박병진 주하원의원은 네이션 딜 조지아 주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버키 존슨 노크로스 시장, 도나 피터먼 도려빌 시장, 지미 버넷 스와니 시장 등 지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페드로 마린 주하원의원은 조규형 이사장에게 명예시민권 증서를 증정했다.

김백규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건립 위원들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서정화 에머리대 학생회장도 축사에 나서는 등 차세대들도 참여했다.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졌다. 사물놀이패, 한인노인회 풍물단, 사랑청춘합창단, 태권도 시범단 등이 축하 무대를 꾸몄다. 또 저녁식사로 비빔밥을 제공하는 등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미국사회에 알리기도 했다.

## 재외동포재단 제4기 대학생 봉사단 선발



51명의 대학생 봉사단은 재외동포재단의 '2015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류사업'에서 동포 청소년들의 고국 체험을 도울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연수 개막식'

재외동포재단은 제4기 대학생 봉사단 'OKFriends Volunteer'를 선발했다.

51명의 4기 봉사단원은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내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으로 구성했다. 재외동포로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독일, 피지, 중국 출신 유학생이 선발됐다.

봉사단은 오는 7~8월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을 초청하는 '2015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봉사 활동 소감을 재외동포재단 월간지인 '재외동포의 창'이나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일도 맡는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며, 우수 봉사자에게는 포상과 연수 기회를 준다.

## 재외동포재단, 한인 단체에 전통문화용품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등 민속놀이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한인회, 문화예술 단체 등 한인 단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글학교, 한인회, 문화예술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북·징·괭과리·장구 등 사물놀이 악기, 한복·훈례복 등 전통 의상, 팽이·제기·웃놀이 등 민속놀이용품을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전통문화 교육을 하거나 거주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재외동포 단체 등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원받

은 적이 없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재단 관계자는 "가용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신청한 품목을 100%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의 민족학교(조선족학교·고려인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말까지 온라인(www.korean.net)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3415-0183, 0186)나 이메일(yhs6543@okf.or.kr, yinjihao@okf.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재외동포재단, 동포 학술 연구 사업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재외동포 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 관련 연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 연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4월 24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사업 적합성, 실행 가능성, 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5월 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 홈페이지나 전화(☎ 02-3415-0094)로 문의할 수 있다.

## 2015년도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재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 불가리아 소피아에 소재한 힐튼소피아 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월 6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힐튼호텔에서 유럽 한인회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총회'가 열렸다.

모두 80여 명의 임원진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과 주불가리아대사관 신맹도 대사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새누리당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과 한명숙 전 총리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상무 재프랑스 한인회장, 지선열 스위스 한인회장, 송경민 루마니아 한인회장, 유럽총연의 새 회원국이 된 강진필 마케도니아 한인회장 등도 참석했다.

박종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는 제4회 유럽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와 함께 열어 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유럽총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유럽총연이 하나가 돼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웅변대회에서도 우리 차세대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맹도 대사는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유럽총연 임원진과 웅변대회 연사, 학부모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차세대 한인체육대회, 5~6월 중 차세대 모국 방문 및 문화 탐방, 9월 영산배 골프대회, 10월 유럽총연 임원 모국 세미나, 한글 글짓기대회 등 2015년 사업 계획을 인준했다.

# 제2의 고향 일본

노은정 일본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초등 부문 장려상

○ 악! 똥 냄새! 오늘은 카이와 마코토, 그리고 내가 토끼 똥 치우는 당번이었다. 그런데 카이가 코를 막고 가다가 똥을 밟아버렸다. 그러자 카이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 버렸다. 토끼는 정말 귀여운 동물인데 똥 냄새만큼은 별로다.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차가운 바람이 토끼 똥 치우는 우리의 뺨을 얼려버릴 것 같았지만 지독한 냄새와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며 우리는 토끼 똥을 다 치웠다.

점심 때에 교장선생님이 물컵 안에 들어 있는 동전을 없애는 마술쇼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1, 2, 3을 세자 동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유치원 떡 치기 날이 다가왔다. 나는 있는 힘껏 작은 떡메로 떡을 쳤는데 한 분이 가장자리 떡들이 마를까 봐 중간으로 계속 밀어 넣어주셨다. 그분의 손이 혹시 다칠까 봐 나는 조마조마했다.

쉬는 시간에는 가끔 친구들과 팽이를 쳤다. 처음에는 내가 팽이를 잘 돌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금방 잘할 수 있었다.

운동회 때는 ‘마쓰리’라는 일본 축제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다이코 북을 쳐 주면 우리는 원을 만들어 돌면서 춤을 추었다. 돛자리 위에서 점심도 먹고 또 폭죽도 터뜨리며 즐겁게 지낸 기억이 난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고구마 캐기를 하러 텃밭으로 갔다. 고구마를 손으로 뽑아서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뜨끈뜨끈하게 고구마를 찌 주셔서 찢은 김치를 얹어서 먹었다.

책을 읽다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음식과 문화가 닮은 점이 아주 많다. 그래서인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다. 우리 학교는 한국에서 온 친구,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 동포 친구, 가끔 외국 친구도 있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배운다.

한국과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까운 편이라 훨씬 한국을 알고 이해하기 쉽다. 가끔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다. 기회가 된다면 옛날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등을 친구들과 하고 싶다.

집에서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반드시 한국말을 사용한다. 그래서인지 오빠와 나는 매운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었다. 일본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고 나면 우린 김치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 한국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가르침과 노력 덕분인 것 같다.

이런 일본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장**





# 바른 말 고운 말

**주년 / 주기** 누군가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가리켜 '탄생 100주년' 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10년 되는 해는 '결혼 10주년' 이라고 하고, 회사를 세운 지 25년이 되는 해는 '창립 25주년' 이라고 부릅니다.

'주년(周年)' 이란 말은 '돌이 돌아온 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사후 해마다 돌아오는 그 죽은 날' 을 가리키는 말로 '주기(周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나 2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음악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서거 200주년' 이라든가 그냥 '200주기'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거' 라는 말 없이 그냥 '200주년' 이라고 한다거나 '서거 200주기' 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서거 200주기' 라는 말은 '서거' 와 '주기' 라는 말에 '죽음' 과 관련된 표현이 반복돼 있습니다.

**애동대동하다** 우리 속담에 '애동호박 삼년 살아도 이도 안 들어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아서 조금도 수궁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에 나온 '애동호박'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동호박' 은 '애호박' 을 말하는데 모두 어린 호박을 말합니다.

'애동' 이라는 말은 '어리다' 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애동대동하다' 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젊다' 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동' 은 앞에 있는 '애동' 이라는 말이 두 번 겹칠 때 나타나는 변동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동애동하다' 가 아니라 '애동대동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 '오순도순' 이나 '애고대고'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모두 뒷말에 'ㄷ' 이 첨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애호박' 이라는 말에 나온 '애-' 라는 말은 다른 말 앞에 붙이면 '어리거나 앓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송이, 애벌레' 같은 말이나 '애젊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오른쪽 방향 열쇠

- '유성(流星)' 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부부가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권태를 느끼는 시기
- 납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
- 장성 계급의 하나. 중장의 위로서 별이 4개인 계급
- 상대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구저분한 모양
- 목적하는 바를 이룸
- 우리나라 고대의 삼국 가운데 동명왕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세운 나라. 668년에 신라와 중국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멸망했다.

-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
- 코끼리의 언니. 위탁에 나서 입 밖으로 뿜어냄 길게 뿜어 있다.
- 황금을 가능케 뿜아 만든 실
- 태양에서 셋째로 가까운 행성. 인류가 사는 천체로, 달을 위성으로 가진다.
- 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게 돼 있는 문이나 창의 한 쪽
- 조선 선조 때의 무신(1545~1598). 시호는 충무(忠武).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서 거북선을 제작하는 등 군비 확충에 힘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산도에서 적선 70여 척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워 삼도 수군통제사가 됐다.

### ▶ 아래쪽 방향 열쇠

- 작전을 위해 본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부대
- 이십사절기의 하나.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300도에 이르면 때로 한 해의 가장 추운 때이다.
- 등불 따위가 휘황하게 켜 있어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곳을 이르는 말
- 우단을 깐 대 위에서 상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몇 개의 공을 큐 끝으로 쳐서 승부를 가리는 실내 오락
-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 반지, 귀고리, 노리개, 목걸이, 팔찌, 비녀, 브로치, 넥타이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무리

- 공포를 느끼도록 옥박지르며 울러냄
-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 옛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혀처럼 식혀서 끓인 음식
- 개의 새끼
- 짚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대표적인 조미료로,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다.
- 이러니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
-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해 들리는 말
-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 ▶ 2월호 정답

근	시	실	인	삼	주
위		무	력		밀
대	사	자	전	거	고
		신	발	설	학
			자	석	손
		영	국	태	금
수	화	선	풍	기	독
면		구	관		독
제		의	자	사	형
					관

강원도의 맛과 향기가 듬뿍

# 침국수와 곤드레나물밥



1

**다**갈비, 메밀전병, 황태국, 막국수, 오징어순대, 곰치국, 송이밥 등은 모두 강원도의 음식이다. 맛깔스럽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 영월에는 깨끗한 자연을 닮아 건강에 좋고 부담스럽지 않은 침국수, 곤드레나물밥, 도토리묵 등의 참살이 음식이 있다. 강원도의 구수함을 전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이다.

면(麵) 요리는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이북 지방의 메밀국수와 냉면, 남부 지방의 칼국수, 강원도의 막국수가 대표적이고 강원도 정선의 울창이국수와 콧등치기 국수, 금강 상류의 생선국수 등 별미에 속하는 면 요리들도 있다.

강원도 영월의 침국수는 이름 그대로 침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국수이다. 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의 고씨굴 관광지에 가면 침국수의 순하면서 걸쭉한 맛의 모미를 발견할 수 있다. 침은 도토리, 산채 등과 함께 흥년이나 춘궁기에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허기를 면하기 위해 먹던 것이다. 산이 많은 영월에서 지천으로 널려 있던 것이 침이기에,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그저 산에 올라 침뿌리를 마냥 씹곤 했



2

다. 그러나 침뿌리의 씹살한 맛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아낙네의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침국수라고 한다.

잘 말린 침뿌리를 절구에 찧어 발이 고운 소쿠리에 담아 여러 번 씻으면 밀가루나 쌀가루와 비슷한 맛을 내는 하얀 앙금이 생긴다. 이 앙금에 밀가루를 조금 넣고 반죽하면 차진 면발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수는 약간 씹살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

고씨굴 관광지에 있는 침국수 전문 식당들에서는 육수에 만 국수 위에 김치, 김, 계란, 부추, 감자가 고명으로 올려 나온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고명을 고루 섞은 후에 먹으면 되는데 면발이 통통해 조금만 집어도 한입을 가득 채운다. 씹살함보다는 달짝



3

지근한 맛이 강하고, 고명들이 국물과 함께 뒤섞이며 구수한 맛을 전한다.

국물이 없는 침비빔국수도 있다. 오이, 계란, 김 등의 고명을 얹은 침국수에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것으로 부드러운 맛보다는 양념 때문에 강하고



4

1. 감자 부침
2. 씹살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침국수
3. 도토리잎 전분을 이용해 만든 도토리묵
4. 강원도 정선군에서 맛볼 수 있는 곤드레 김치
5. 은은한 향기가 일품인 곤드레나물밥
6.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곤드레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곤드레 밥을 맛보고 있다.



5



6

매운 맛이 난다. 입맛을 돋우기에 좋은 음식이다. 침국수 한 그릇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강원도의 맛을 전하는 다른 음식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바삭하게 잘 구운 노릇노릇한 감자 부침은 입맛을 사로잡고, 팔소를 넣은 감자 송편은 고소함이 일품이다.

강원도 정선이나 영월에서는 특산품인 곤드레나물을 이용한 나물밥을 맛볼 수 있다.

원래 곤드레나물밥은 강원도 정선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영월에서는 다른 나물을 섞어 푸짐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영월읍 청산회관의 곤드레나물밥은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하얀 쌀밥 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친 곤드레나물이 얹혀 나온다. 입맛에 따라 무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깻잎나물을 넣고 양념간장으로 간을 맞춰가며 비벼 먹으면 된다. 물론 씹살래하면서도 부드러운 곤드레 고유의 향과 맛을 느끼고 싶다면 곤드레만 넣고 비벼서 먹어도 좋다.

특히 함께 나오는 시래기 된장찌개는 곤드레의 향긋함과 어우러져 향수 어린 구수함까지 전한다. 밑반찬으로 내는 도토리묵 무침과 배추김치, 고추 장아찌, 손두부, 도라지 무침 등도 정갈한 맛을 낸다. 

Tip

### ▶ 고씨굴



임진왜란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하였던 곳에서 유래한 고씨굴(高氏窟)은 4억 년의 신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동굴이다. 전형적인 석회동굴로 총길이 950m, 지굴이 길이는 약 2천438m이며 이 중에서 약 500m 구간만이 관광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

연휴, 주말, 여름 성수기에는 15분 간격으로 50명씩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시간 : 09:00~18:00

문의처 : 고씨굴 관리사무소

(☎ 033-370-2621)

### ▶ 영월읍 여행정보



#### • 당일 여행 코스

주천 쇠다리 → 조건당 →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 → 우구정 가옥 → 선돌

#### • 관련 웹사이트

영월관광([www.ywtour.gp.kr](http://www.ywtour.gp.kr)),  
조건당([www.jogyundang.com](http://www.jogyundang.com))

#### • 대중교통

- 버스 (동서울종합터미널 1일 13회,  
센트럴시티터미널 1일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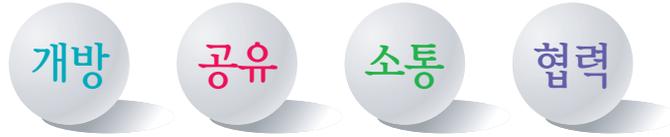
- 기차 (청량리역-영월역)

: 무궁화호 1일 6~8회

#### • 식당정보

청산회관(곤드레밥) 033-374-2141  
주천목집(메밀묵밥) 033-372-3800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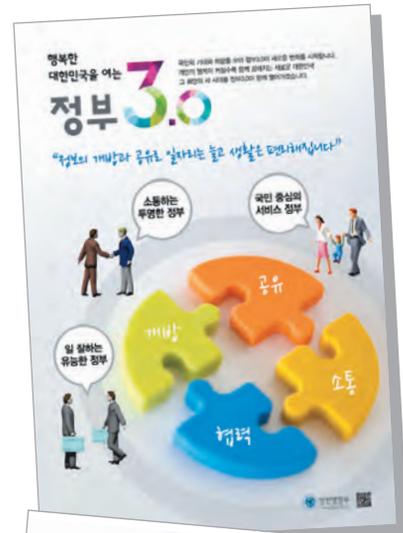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 [wakaru@yna.co.kr](mailto:wakaru@yna.co.kr)  
[shaorong@okf.or.kr](mailto: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OK
-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OK
-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행정자치부

EUROPE  
124,000

CIS  
491,000

CANADA  
205,000

USA  
2,091,000

CHINA  
2,573,000

JAPAN  
892,000

MIDDLE EAST  
25,000

AFRICA  
10,000

SOUTHEAST ASIA  
296,000

OCEANIA  
188,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11,000

“700만 재외동포,  
세계속의 한국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